

睡隱 姜沆의 連作形 題詠詩 고찰*

박세인**

<차 례>

1. 머리말
2. 睡隱 連作形 題詠詩의 作詩 배경
3. <水月亭三十詠>과 <癡軒八詠>의 형상화 방식
4. <水月亭三十詠>과 <癡軒八詠>의 시적 지향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睡隱 姜沆(1567, 명종 22~1618, 광해군 10)의 連作形 題詠詩인 <水月亭三十詠>과 <癡軒八詠>의 대비적 고찰 통해 睡隱詩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연구된 것이다. 수은의 문집 『睡隱集』에 수록된 14제 52수의 제영시 중 연작형 제영시는 이들 두 작품뿐이다.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은 누정 주변에 펼쳐진 자연 경관을 시적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7연절구로서 8연 이상의 연작시라는 형식적 유사성이 있다. 그러나 자연에 대한 감흥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두 작품의 作詩 배경과 연작의 구성 방식 그리고 物象의 형상화 양상 등에 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수은의 연작형 제영시가 갖는 시적 지향까지 살펴보았다.

먼저, 수은이 水月亭과 癡軒을 대상으로 지은 <水月亭記>와 <癡軒記>를 통해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작시 배경을 고찰하였다. <수월정30영>은 정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322-B00033).

** 전남대학교

치적 실패를 경험하고 귀향한 수월정 주인 鄭滌의 상처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에 비해 <치현8영>은 치현의 주인이자 수은과 사돈 간인 丁鎔의 ‘어리석은[癡]’ 삶의 가치와 자긍심을 드러내고자 창작되었다.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은 모두 八景歌型 연작 제영시에 속하지만, 가장 기본적 공통점인 소재명의 제명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두드러진다. <수월정30영>의 소재명은 자연 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이나, <치현8영>은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경물을 단순히 반복적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연작의 구성에서도 <수월정30영>은 序(제1영)-本(제2영~제24영)-結(제25영~제30영)의 안정적인 3단 구성 안에 수월정 주변의 다양한 경관을 펼쳐 놓았다. 그러나 <치현8영>은 本(제1영~제7영)-結(제8영)의 2단 구성을 통해 癡翁의 인품과 유관한 경물을 되풀이하고 마지막 8영으로 종결하는 방식이다.

수은은 이렇게 서로 다른 구성 방식을 통해 두 작품의 상이한 작시 의도에 따라 물상을 형상화하고 있다. <수월정30영>에서는 자연의 다기함을 활용하여 이상적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의 순환적 질서를 통한 자연의 영속성과 불변성, 경물의 조화로우음과 다채로우음, 자연과 동화된 인간의 모습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비해 <치현8영>은 다소 단조로운 형상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수은은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경물을 선택하여 치옹의 ‘어리석고 우직한’ 삶의 ‘정신적 우월함’을 반복해서 드러내고 있다.

한편, 수은과 수월정 주인 정설 그리고 치현의 주인 정용에게서 ‘버려짐[棄]의 상처’와 버려진 후에 ‘자연으로의 귀의’라는 동일한 경험이 발견되고 있다. 수은은 일종의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이들을 위한 작시 행위를 하고 있으며,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상처의 치유를 통한 자존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핵심어 : 수은, 강항, 수은집, 연작형 제영시, 수월정, 수월정30영, 치현, 치현8영, 정설, 정용, 치유, 회복

1. 머리말

睡隱 姜沆(1567, 명종 22~1618, 광해군 10)은 정유왜란(1597, 선조 30) 때 왜군에게 被虜되었다가 일본에서 4년여의 포로생활을 겪은 후 1600년(선조 33)에 生還한 전남 靈光 출신의 문인이다.¹⁾ 이러한 녹록치 않은 삶의 여정, 특히 피로과정에서 겪은 비극적 체험과 생환을 위한 포로생활 중의 고군분투를 기록한 수은의 『看羊錄』은 많은 이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수은에 대한 학계의 연구도 여기에 집중되어 ‘일본에 조선 유학을 전수한 학자’²⁾ 혹은 ‘전쟁 체험을 꺾진하게 기록한 애국적 문인’³⁾

1) 수은의 생애는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정리되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으며, 논문 전개에 필요한 사항만 언급하고자 한다.

2) 이와 관련된 연구는 일본 학자들에 의해 먼저 주도되었으며, 이후 우리 학계에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松田甲, 「藤原惺窩と姜睡隱の關係」, 『韓日關係史研究』, 朝鮮總督府, 1929.

阿部吉雄, 「藤原惺窩の儒學と朝鮮-姜沆の彙抄十六種の新調査にちなんで」, 『朝鮮學報』 제12집, 조선학회, 1958.

內藤雋輔, 「壬辰·丁酉役に 있어서 被虜朝鮮人の 刷還問題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제3권 3호(통권 제22호), 국회도서관, 1966.

辛基秀·村上恒夫 共著, 『儒者姜沆と日本』, 東京: 明石書店, 1991.

姜在彦, 「江戸儒學と姜沆」, 『日本學』 제13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4.

김태준, 「일본 신유학의 성립과 조선학자-임란전후의 조선문화의 대일영향을 중심하여」, 『명대논문집』 제8집, 명지대학교, 1975.

이민호, 「임진왜란기 강항의 적응생활과 일본유학」, 『단국대학교대학원학술논총』 제9집, 단국대학교, 1985.

박근섭, 「강항이 일본 주자학에 끼친 영향」, 『일본학보』 제37집, 한국일본학회, 1996.

이동희, 「수은 강항의 애국정신과 일본에의 주자학 전파」, 『유교사상연구』 제12집, 한국유교학회, 1999.

최대우·안동교, 「강항의 위도정신과 일본에서 유학전수」, 『호남문화연구』 제3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6.

3) 김명식, 「간양록 연구-전쟁문화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김기빈, 「수은 강항 연구-애국사상과 문학세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태준, 「임진왜란과 국외체험의 실기문학」,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이채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제13집, 한국문학회,

등의 평가와 함께 전쟁 기록문학으로서 『간양록』의 實記문학적 성격이 주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수은은 생환 이후 향리로 돌아와 강학과 학문에 몰두하는 한편, 詩文 창작에도 힘써 그의 문학적 자취가 문집인 『睡隱集』⁴⁾에 전하고 있다. 『수은집』에는 총 306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는데⁵⁾, 그중에서도 특히 原集의 권1에 실려 있는 260여 수의 한시는 대체로 생환 이후에 창작된 것이다. 근래에 들어 귀향 이후 수은의 시작 활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변화된 삶의 조건 속에서 펼쳐진 睡隱詩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게 되었다.⁶⁾

본 논문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수은의 連作形 題詠詩에 대한 고찰을 통해 수은시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연구된 것이다. 제영시는 일반적으로 樓亭⁷⁾의 명칭이나 누정 주변의 경관을 題名으로 하여 제작된 시를 말하는데, 『수은집』에는 14제 52수의 제영시가 수록되어 있다. 이 중에서 연작형 제영시는 <水月亭三十詠>⁸⁾과 <癡軒八詠>⁹⁾ 등 2제 38수로서

1992.

임치균, 『간양록』 연구-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통권 8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4) 姜沆, 『睡隱集』, 민족문화추진회 편, 《한국문집총간》 제73집, 경인문화사, 1996. (이하 『睡隱集』이라 칭함.)

5) 『睡隱集』은 原集 4권, 『看羊錄』, 附錄, 別集 등 총 4책으로 묶여졌으며, 이 중 한시는 원집 권1에 180제 263수, 별집에 12수, 『간양록』 중 <涉亂事跡>에 31수가 실려 있다.

6) 이혜순, 「수은 강항의 시적 사유와 그 의미-귀환 이후의 시작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제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채승훈, 「수은 강항의 시세계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김동준, 「수은 강항의 삶과 시」, 한국한시학회 편, 『한국한시작가연구』 제8집, 태학사, 2003.

박세인, 「수은 강항의 시문학 연구-내상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7) 논자에 따라서는 樓亭을 기능에 따라 세분하기도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樓와 亭을 비롯하여 堂, 精舍, 閣, 齋, 軒 등의 이름이 붙은 건축물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8) <水月亭三十詠>, 『睡隱集』, 권1, 31~32쪽.

9) <癡軒八詠>, 『睡隱集』, 권1, 32~33쪽.(이하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제영들

제영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¹⁰⁾ 경물에 대한 순간적 감흥을 읊은 單聯形 제영시에 비해 연작형 제영시는 여러 연이 모여 한 편의 시를 구성하므로, 作詩에 앞서 일정한 형식적 틀을 미리 상정하고 주제를 구현해 가는 일종의 기획적 시작이다.¹¹⁾ 따라서 특정 주제와 관련한 시인의 문학적 사유를 천착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본 논문에서 수은의 연작형 제영시를 주목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은 누정 주변에 펼쳐진 자연 경물을 시적 제재로 삼고 있는 공통점이 있으며, 두 작품 모두 연의 구성이 8연 이상이라는 형식적 유사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을 완상하고 그 감흥을 표현하는 방식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작시 배경과 연작의 구성 방식 그리고 物象의 형상화 양상 등을 대비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은의 연작형 제영시가 함의한 시적 지향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睡隱 連作形 題詠詩의 作詩 背景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은 모두 7언절구의 연작형 제영시로서, 각각 水月亭¹²⁾과 癡軒의 주변 풍광을 읊고 있다. 두 작품의 작시 배경과 관

은 문헌명, 권수, 쪽수 등은 생략하고, 제영의 순서와 소재명만 표기한다.)

10) <水月亭三十詠>과 <癡軒八詠>을 제외한 12제 14수의 제영시는 다음과 같다. <次鳴臯石洲韻寄百花亭>, <次百花亭韻>, <次陳汝郁茅亭韻>, <嶺南樓次漢陰李相公韻> 2수, <雲堤新築次洪羣玉韻>, <廣寒樓次韻呈府伯慶侯>, <羅彦章梅月亭次洪羣玉韻>, <寄題四友亭>, <歸過柳健叔花雪堂次羅牧韻>, <梁會元蟠溪精舍>, <題松沙後堂>, <花雪堂次南郭韻> 2수.

11) 김신중, 「전남의 누정제영 연구-조선 후기의 연작제영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4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6, 257쪽 참조.

12) 전라남도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섬진마을 앞 섬진강변에 자리한 현재의 수월정은 광양시에서 1999년에 새로 개축한 것이다. 그 옆에 수월정 옛터를 기념하여 ‘水月

련된 사항은 이들의 詩題 아래에 누정 주인이 鄭濩¹³⁾과 丁鎔¹⁴⁾이라는 것이 부기되어 있을 뿐 다른 부가적 정보는 거의 없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수은은 『수은집』 권3에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樓亭記 <水月亭記>¹⁵⁾와 <癡軒記>를 남기고 있다. <수월정기>와 <치현기>는 장르만 다를 뿐 같은 공간을 대상으로 창작된 것이기 때문에 수은의 작가적 의식은 유사하게 작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들 記文의 내용을 살펴보는 것으로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작시 배경을 미루어 짐작하고자 한다. 먼저, <수월정기>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 牧使 光州의 鄭侯가 나이 오십에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선대부 玉川선생의 별업을 좇아 光陽으로 갔는데, 선조의 廬幕에서 십 리쯤 떨어진 곳에 살면서 빼어난 장소를 골라 정자를 짓고 ‘水月’로 이름을 삼았다. 내가 보건대 대저 남쪽의 산중에 우뚝 솟아올라 높은 곳이 무수히 많으나 백운산이 가장 기이하고, 남방의 물길 중에 배를 띄울 수 있는 데가 수십 곳이지만 섬진강이 가장 장대하다. 백운산의 동쪽 기슭을 집의 머리로 삼고, 섬진강의 상류를 집 아래에 두었으니 빼어난 경치를 논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하물며 천하의 삼신산인 방장산이 그 하나로 자리했으니, 연기 피워 밥을 지어먹으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방장산의 이름을 들어본 사람 또한 거의 없다. 그 곳에서

亭遺墟碑’가 세워져 있다.

13) 亭主鄭濩 官至牧使<水月亭三十詠>, 『睡隱集』, 같은 쪽.)

14) 主人丁鎔<癡軒八詠>, 『睡隱集』, 같은 쪽.)

15) 松江 鄭澈도 『松江集』, 續集, 권2, 雜著편에 <수월정기>를 남기고 있는데, 같은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할 만큼 수은의 <수월정기>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수월정기>의 정철 작가설은 그의 생애를 고려했을 때 재고의 여지가 있다. 정철의 <수월정기>에 따르면 정철은 그의 ‘나이 50세’ 때, ‘10여 년의 兵火’가 지난 후에 수월정을 조영했다. 정철이 1547년에 태어났으니 50년 후면 1597년쯤이 되며, ‘병화’는 임진왜란(1592)을 뜻하므로 10여년 후라면 1602년을 전후한 시기이다. 그런데 정철은 임진왜란 중인 1593년에 강화에서 사망했다. 따라서 설령 시기를 소급하여 전쟁 전에 정철을 만났다고 가정하더라도 ‘兵火十年’은 정철의 이력과 어긋남이 있다. 한편, 『松江集』, 別集, 권1에 실린 <次水月亭韻> 2수 역시 수은의 <수월정30영> 중 제1영, 제2영과 같은 내용이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았을 때 정철의 수월정 관련 시문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편, 『호남문화연구』 제20집, 1991, 247쪽 및 광양시지편찬위원회 편, 『광양시지』 제1권, 2005, 903쪽 등에서도 정철의 <수월정기>를 실고 있다.)

기거하고 먹고 마시며 아침저녁으로 상대하니 어떠하겠는가? 왼쪽으로는 영남이요 오른쪽에는 호남이며, 섬 오랑캐를 끌어들이어 상선들이 달려와 모여드는 곳이며, 팔고 사는 일이 폭주하는 곳이다. 岳陽의 아침 아지랑이와 鶴洞의 저녁 안개, 철쭉이 온 산을 덮고, 여름 구름은 산봉우리를 만들며, 서리 내려서 숲이 온통 붉어지고, 얼음이 얼어 긴 강이 하얗게 되는 등 천태만상이 모두 앉은 자리 아래로 모여드니, 이것이 수월정이 승경을 선택했다는 까닭이다. 병화 10여 년에 문물이 일시에 없어졌으나 수월은 옛날과 같이 변함없다. 세상이 내려갈수록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인심이 옛날과 같지 않으나 수월은 전과 같다. 시장의 도리가 날로 교묘해져서 한 푼씩이라도 모두 올랐으나 수월은 값이 없다. 마른 곳은 버리고 무성한 곳으로만 모여들어 문에는 가히 새그물을 치는데도 수월은 멀리하지 않는다. 가기를 이렇듯이 해도 일찍이 가버린 것이 아니요, 차고 비어짐을 저렇듯이 해도 끝내 없어지지 아니하고 자라난다. 물에 떠오른 달이 금빛으로 일렁이고, 달의 고요한 그림자는 벽이 가라앉은 듯하니, 물은 달을 얻어 더욱 맑고, 달은 물을 얻어서 더욱 밝다. 바로 정후의 마음속에 품은 빛과 위아래로 똑같이 들어맞은 것이니, 이것이 수월이라는 이름을 얻은 까닭이다. 내가 비록 공의 정자에 오르지는 못했으나 다행히 일찍이 공의 노래를 남몰래 외웠었고, 공의 글을 보고서 이미 수월의 대체적인 것은 알고 있으며, 공의 마음 같은 것이라면 내 본래 알고 있으므로 이에 쓰노라.¹⁶⁾

위의 내용을 통해 수월정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수월정은 백운산을 뒤로 하고 섬진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조성되었는데, 정지의 주인은 목사 벼슬을 지낸 바 있는 정설이라는 인물이다. 정설은 50여

16) 前牧使光州鄭侯 年五十而棄於時 遂求先大夫玉川先生之別業於光陽 距先廬十里許 而居之 選勝爲亭 以水月爲名焉 余觀夫南方之山 巍然高者以千數 而白雲爲最奇 南方之水 可行舟者以十數 而蟾江爲最大 以白雲之東麓爲屋山 而以蟾江之上流置屋下 則勝絕有不暇論也 而況天下之三神山 方丈居其一 烟火食人之生世間 聞方丈之名者亦罕矣 其於起居飲食 早夜相對者 何如哉 左嶺右湖 控引島蠻 商航之所走集 市賈之所輻湊 岳陽朝嵐 鶴洞暮烟 躡躅成山 火雲成峯 霜落而千林紅 冰塞而長河白 千態萬狀 畢集於几席之下 則此水月之所以選勝也 兵火十年 文物一空 而水月則依舊也 世降俗末 人心不古 而水月則猶前也 市道日巧 一錢俱湧 而水月則無價也 棄枯集菟 門雀可羅 而水月則不遐也 逝者如斯而未嘗往也 盈虛者如彼而卒莫消長也 浮光躍金 靜影沉壁 水得月而益清 月得水而益白 直與侯之胸采 上下乎同符 則此水月之所以得名也 余雖不獲登公之亭 而幸嘗竊誦公之歌 見公之書 已得水月之大槩 而若公之心則余固知之 於是乎書。(〈水月亭記〉, 『睡隱集』, 권3, 59~60쪽.)

세의 나이에 뜻하지 않게 宦路에서 물러나 부친의 別墅가 있는 광양에 내려와 수월정을 지은 것이다.

그런데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수월정기>를 지을 당시 수은이 아직 수월정을 방문하지 못했으며, 정설이 지은 詩歌와 글을 통해 수월정의 규모를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수월정기>에 묘사된 풍광은 수은이 직접 체험한 것이라기보다는 악양 일대의 섬진강변에 대한 당시의 관습적 표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듯 수월정 주변 경관에 대한 묘사를 보면 絶勝에 대한 개성적인 상찬이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다. 대신 수은은 ‘水月’이 함의하고 있는 속성을 통해 자연과 정설에 대한 그의 생각을 풀어내고 있다.

<수월정기>의 ‘수월’은 수월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물과 달, 곧 자연을 상징하기도 한다. 위의 밑줄 친 부분에서 수은의 자연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세상의 도리는 잠깐의 곤란에도 변질되었으나 자연은 옛날과 변함없는 모습으로 순환하면서 여전히 그 자리로 돌아오고, 소멸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성장하고 있다. 인정이 사라진 자리에도,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쓸쓸한 문가에도, 자연은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恒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물은 달로 인해 더욱 맑아지고 달은 물로 인해 더욱 희어지듯이, 자연에 대해 순수한 도리가 지켜지는 조화로운 세계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정설이 ‘수월’을 누정의 이름으로 얻게 된 것은 그의 마음이 수월과 꼭 들어맞았기[上下乎同符] 때문이라고 하였다. 요컨대 정설은 명리에 따라 쉽게 마음을 옮기지 않고, 부박한 세대에 함부로 휘둘리지 않는 수월, 즉 자연을 닮은 사람인 것이다. 그런데 그는 세상에서 쓰이지 못하고 버림[棄於時]을 받았다. 정설이 버림을 받고 원칙과 도리가 지켜지는 자연으로 돌아와 자연과 같아졌으니, 자연은 그에게 위로와 치유의 공간이 되었을 것이다. 수은은 기문 말미에서 이러한 정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음을

17) 박세인, 앞의 논문, 106쪽.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월정기>는 수운이 수월정의 주변 경관을 빌어 상처받은 정설에게 보내는 깊은 이해의 전언이자 위로와 격려의 글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치헌기>는 <수월정기>와 조금 다른 배경에서 창작되었다. 다음 <치헌기>의 내용에서 이러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형수에게 오라비가 있는데, 丁君 仲化씨이다. 젊어 상투를 틀었을 적부터 향리에서 나아가지 않고, 나이 오십이 넘어서도 더욱 스스로 재택을 숨기고 감추었다. 마을 사람들이 혹여 어리석다고 하면, 중화씨는 “심히 좋구나. 이름이 나에게 진실로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이로 인해 癡翁이라 自號하였다. 정유년 난리에 대대로 내려온 터전이 다 불타버리자 선조의 여막으로부터 100보쯤 떨어진 곳에 띠집 몇 칸을 엮고서 이름을 癡軒이라 하였다. 집을 모두 대나무로 둘러놓으니, 원근의 지나는 사람들이 다만 수많은 대나무만 볼 수 있을 뿐 인가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다. 집 아래에 맑은 샘이 하나 있는데 대나무 뿌리에서 물이 솟아 나와 많은 양의 물이 모아져 넓은 못이 되었다. 연못의 사방에 연꽃 십여 뿌리와 국화 수백 포기를 심으니, 여름에는 연꽃이, 가을에는 국화가 피고, 대나무가 사계절에 걸쳐 자라나므로 봄꽃처럼 잠깐 동안만 고운 것이 아니었다. …(중략)…치헌에 걸터앉아 癡歌를 불렀는데 “세상 사람들이여, 나를 어리석다 함이여, 나를 어리석다 하는 자, 그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함이여, 내 나의 어리석음을 보존하여 내 天壽를 마침이여, 도도하게 절로 즐거우니, 年數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겠네.”라 하였다. 일찍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말하기를 “나는 어리석어 능히 세상에 쓰임이 있지 아니하고, 자네도 죄를 지어 또한 시대에 버림받았으니, 우리 집의 기문을 쓸 사람이 자네가 아니면 안 되겠네.”라고 하였다. …(중략)…이제 치옹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고집스러움에 분개하고 몸을 감추며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지 못함을 다행스럽게 여기고 어리석다는 이름을 즐겨 받으니, 치옹의 지혜에는 가히 미칠 수 있으나 그의 어리석음에는 가히 미칠 수 없다. 치옹의 집에도 어진 부형이 많고 내외종간에도 현명한 사대부들이 있어서, 王武子가 王湛을 알아주는 것 같이 그가 어리석지 않음을 알아주는 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치옹에게 사돈 간의 호의가 있어서 치옹을 아는 깊이가 나만한 사람이 없다. 이런 까닭으로 그 집의 기문을 쓰고 마침내 그 사람됨에까지 미쳐 숨겨진 덕을 드러내는 것이다.¹⁸⁾

18) 吾丘嫂有兄曰丁君仲化氏 自少結髮 不出鄉里 年過五十 益自韜晦 鄉人或以爲癡 仲

위의 내용에서 치현의 주인 정용은 수은과 사둔 간으로 ‘癡翁’이라는 自號를 갖고 있으며, 정유왜란 때 대대로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자 새로 거소를 마련하고 ‘치현’을 堂號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수은이 <치현기>를 쓰게 된 내력과 목적 또한 명확히 밝혀져 있다. 정용은 수은과 자신의 비슷한 상황, 즉 시대의 버림[棄於時]을 받은 처지를 내세워서 기문을 써 줄 것을 간곡히 권유하고 있다. 이에 수은은 <치현기>를 통해 치용의 사람됨[爲人]을 살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진 덕[潛德]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치현기>에서는 자연 경물의 묘사가 매우 소략하고 대부분의 내용을 누정 주인인 치용의 일화를 기술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수월정에서 조망하는 풍광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수월정기>와는 달리, <치현기>에서는 치현 주변에 대나무, 연꽃, 국화 등이 심어져 있다는 것이 경물 묘사의 전부이다. 특히 이들 경물은 전통적으로 君子 혹은 隱者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치용의 잠덕을 들추어내려는 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들이다.

치용 정용은 조선시대 양반가 사대부라면 당연히 소망하는 立身揚名에 바보스러울[癡] 정도로 무심할 뿐만 아니라, 재주와 덕을 더욱 숨기면서 [韜晦]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음을 기꺼워하고 있다. 밑줄 친 부분에서 드러나듯이 세상은 현실적 실리를 좇지 않는 정용을 어리석다 말하지만, 그는 도리어 세상을 향해 어리석다 비웃고 있다. 이렇게 자연에 묻혀 사는 치용의 어리석음은 전쟁으로 터전을 상실한 곤궁함 속에

化曰甚善 名我固當 因自號曰癡翁 丁酉之亂 世業俱燼 距先廬百步許 結茅數間 名之曰癡軒 環舍皆竹也 遠近之經過者 只見千畝之檀欒 而不知有人家也 屋下有清泉一股 湧出於竹根 貯數斛爲方池 種蓮十餘莖 池之四方 種菊數百叢 蓮以夏菊以秋 竹以貫四時 而無春花片時之綽綽也…(중략)…踞癡軒歌癡歌曰 世上之人兮 以我爲癡兮 以我爲癡者 不知其癡兮 吾保吾之癡兮 以終吾天年兮 陶陶自樂 不知年數之不足也 嘗以書抵余曰 吾以癡不能有爲於世 子以鬱又棄於時 記吾之軒者 微子則不可…(중략)…今癡翁憤世人之癡頑 而隱身不出 幸世人之不知己 而樂受癡名 則癡翁之智可及也 而其癡不可及也 癡翁之家 多賢父兄 而中表又有賢士大夫 必有知其不癡如武子之知湛矣 余於癡翁 有葭莖之好 知翁之深者莫如余 故因記其軒而遂及其爲人 以發潛德云。(〈癡軒記〉, 『睡隱集』, 권3, 58쪽.)

서도 삶의 당당함을 가능케 하는 자존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치옹은 ‘어리석음을 보존하여 천수를 마치겠다’는 호탕한 선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수은은 치옹의 권유로 <치헌기>를 지음으로써 이와 같은 삶의 태도에 대해 깊은 공감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러므로 <치헌기>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곳, 곧 자연 속에서 영위하는 ‘어리석으나 어리석지 않은’ 삶의 가치에 대한 자긍심을 표출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수월정기>와 <치헌기>에 드러난 두 층위의 제작 의도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수월정30영>과 <치헌8영>의 작시 동기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에 이어지는 연작형 제영시의 구성 방식과 형상화 양상에서 이러한 점들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3. <水月亭三十詠>과 <癡軒八詠>의 형상화 방식

3.1 연작의 구성 방식

<수월정30영>과 <치헌8영>의 형식적 특질 중 가장 먼저 발견되는 공통점은 이들이 몇 개의 연이 모여 한 작품을 이루는 연작 형식이라는 점이다. 두 작품처럼 조선 후기에 제작된 전남 지역의 연작형 제영시는 제명 표기 방식에 따라 보통 四時歌型, 九曲歌型, 八景歌型으로 대별된다. 이 중에서 <수월정30영>과 <치헌8영>처럼 ‘~詠’ 혹은 ‘~景’을 제명으로 가진 팔경가형이 가장 보편적인 형식이다.¹⁹⁾ 일반적으로 팔경가형 연작 제영시는 대부분 8연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의 瀟湘八景²⁰⁾과 같이 구체적인 경치를 제시하는 소재명을 수반한다는 구성적 특징을 보인다.²¹⁾

19) 이외에 四時歌型 연작 제영시는 ‘~四時詞’라는 제명이, 九曲歌型 연작 제영시는 ‘~九曲’이라는 제명이 주로 붙는다.

20) ‘瀟湘八景’은 중국 湖南省 洞庭湖 남쪽에 있는 瀟水와 湘水 부근의 여덟 개의 아름다운 경치를 이른다.

이러한 팔경가형 연작 제영시의 형식적 특징이 <수월정30영>과 <치현 8영>에서도 발견된다. 그런데 이들 작품은 소제명이 부기되어 있다는 공통점은 있으나, 그 제명 방식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제영의 순서에 따라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소제명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표 1-〈수월정30영〉의 소제명

순서	소제명	제명 성격	순서	소제명	제명 성격
제1영	大洞風月	경관 제시(*)	제16영	竹林栖鳥	경관 제시
제2영	岳陽烟霞	경관 제시	제17영	長郊牧笛	경관 제시
제3영	競秀千岩	경관 제시	제18영	遠浦漁歌	경관 제시
제4영	爭流萬壑	경관 제시	제19영	竹桶引泉	경관 제시
제5영	分地春花	경관 제시	제20영	水碓春梁	경관 제시
제6영	方丈夏雲	경관 제시	제21영	間竹梅菊	경관 제시
제7영	白雲秋月	경관 제시	제22영	傲雪松篁	경관 제시
제8영	蓴岩冬雪	경관 제시	제23영	魚躍蓮池	경관 제시
제9영	東嶺朝暎	경관 제시	제24영	霜酣楓岸	경관 제시
제10영	西山落照	경관 제시	제25영	南橋送客	행위 제시
제11영	朝宗逝水	경관 제시	제26영	北里招朋	행위 제시
제12영	歸市行人	경관 제시	제27영	龍灘泛舟	행위 제시
제13영	平沙落鴈	경관 제시	제28영	龜淵釣魚	행위 제시
제14영	柳岸飛鶯	경관 제시	제29영	松下煎茶	행위 제시
제15영	靑坡牧犢	경관 제시	제30영	梅邊酌酒	행위 제시

• 표 2-〈치현8영〉의 소제명

순서	소제명	제명 성격	순서	소제명	제명 성격
제1영	蓮池	경물 제시	제5영	菖蒲	경물 제시
제2영	菊花	경물 제시	제6영	古木	경물 제시
제3영	寒梅	경물 제시	제7영	怪石	경물 제시
제4영	梧桐	경물 제시	제8영	四季	시간 제시

두 작품의 소제명 목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수월정30영>이 자연 경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데 비해, <치현8영>은 대상 경물의 명칭

21) 김신중, 앞의 논문, 261~265쪽 참조.

을 단순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수월정30영>은 소재명만으로도 수월정의 주변 경치를 대체로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치현8영>에서는 치현에서 조망되는 경관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다. 그보다는 소재명으로 제시된 경물의 성격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치현8영>의 소재명이 제8영을 제외하고 모두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자연물들이라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다.

이는 두 시에서 詩意를 구현하는 방식이 서로 다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수월정30영>에서는 다채로운 자연 경관을 ‘펼침’으로써, <치현8영>에서는 경물의 상징적 의미의 ‘반복’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드러내려 하고 있다. 이러한 다채로운 ‘펼침’과 단순한 제시에 의한 ‘반복’은 두 작품의 연작 구성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펼침’의 방식이 나열로 그치지 않고 적절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제명의 성격과 음영 부분을 고려하여 <표1>을 살펴보면, <수월정30영>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영은 (*)표시가 되어 있듯이 소재명의 성격으로 보자면 경관 제시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시의 내용은 시적 화자의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

浮世功名五十年
歸來四壁客無糧
惟有溪風與杉月
取之應不費文錢²²⁾

덧없는 세상에 이름을 알린 지 50년
돌아오니 네 벽에 손님 앓을 방식도 없네
오직 산골짜기 바람과 삼나무에 걸린 달뿐이니
취하여도 응당 엽전 한 푼 들지 않으리

<수월정30영>의 제1영은 ‘깊은 골짜기의 바람과 달’이라는 제명을 갖고 있지만, 벼슬을 떠나 50세의 나이로 귀향한 시적 화자의 쓸쓸한 마음이 진하게 그려지고 있다. 승구의 내용으로 보아 찾아온 손님에게 내놓을 방석조차 없을 만큼 고단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적적함을 고향

22) <수월정30영> 중 제1영 ‘大洞風月’.

산천에서 위로받으려는 마음이 전구와 결구에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제1영은 앞으로 전개될 내용을 예견하는 序詩적 성격이며, 산수에 대한 본격적인 감흥은 제2영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다.

이후 제2영부터 수월정 주변의 다가한 경관을 읊어가던 시인의 시선이 제25영부터는 자연 생활의 흥취를 한껏 즐기는 시적 화자의 구체적인 행위로 옮겨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제2영~제24영은 本詩부분으로서 수월정에서 조망하는 경치의 빼어난 실상을 읊고 있다면, 제25영~제30영은 자연과 인간의 어울림을 통해 시를 마무리하는 結詩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수월정30영>은 단순한 나열식 ‘펼침’이 아니라 서-본-결의 체계적인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치현8영>을 소제명의 성격과 음영 부분에 따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제1영 ‘蓮池’를 보면 첫수의 성격이 <수월정30영>과는 다름이 발견된다.

癡翁不放愚泉出
鑿破蒼苔一席強
十柄芙蓉當伎女
小軒風物不淒涼²³⁾

치옹이 우천을 제멋대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푸른 이끼 한 자리를 힘써 파내었네
열 줄기 연꽃이 기녀를 대신하니
작은 집의 풍물도 처량하지 않네

누정 주인 치옹이 愚泉을 막아서 작은 연못을 만들고, 그 주위에 연꽃을 심어 놓은 후 흐뭇해 하는 모습이다. <수월정30영>의 제1영과는 달리 시적 전개 방향의 안내라는 연작시의 서시적 성격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즉, <치현8영>은 제1영에서부터 바로 본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이어지는 제2영부터 제7영까지 연꽃의 이미지와 유사한 경물들이 시의 체재로 반복해서 선택되어지고 있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명의 성격이 마지막 제8영에 와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 제8영의 제명 ‘四季’는 경물의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시간적 성격을 보

23) <치현8영> 중 제1영 ‘蓮池’.

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 <치헌8영>은 제7영까지 비슷한 의미를 되풀이하다가, 마지막 제8영에서 앞의 내용들을 시간적으로 아우르는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치헌8영>은 의미가 반복되는 본시부분과 시의 종결, 곧 본-결의 2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소재명의 성격을 통해 <수월정30영>과 <치헌8영>에서 드러나는 연작 구성 방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차이는 두 작품의 서로 다른 작시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수월정30영>은 위로의 공간으로서 자연의 속성을 표현하기 위해 펼침의 방식이 적격이었다면, <치헌8영>에서는 자긍심을 표출하기 위해 고귀한 가치의 반복적 구성이 필요했던 것이다.

3.2 物象의 형상화 양상

지금까지 <수월정30영>과 <치헌8영>에 대한 고찰을 통해 두 작품 모두 자연 완상의 감흥을 읊은 것이지만, 작시 동기에 따라 시의를 구현하는 방법이나 연작 구성 방식에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여기서는 이렇게 서로 다른 형식적 틀을 통해 수은이 형상화하고 있는 시적 세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수월정30영>은 환로에서 낙마하고 귀향한 시적 화자, 즉 정설의 적막한 처지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정설이 부친의 別業이 있었던 광양을 택해서 수월정을 조영한 것은 세상에서 상처받은 자식이 결국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이다. 아마도 정설은 부모의 따뜻한 자취를 느낄 수 있는 향리에 수월정을 짓고, 그곳에서 逍遙吟詠하며 자신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까닭에 정설이 피난처로 택한 공간, ‘수월’은 부모의 품처럼 무시로 드나들어도 언제나 변함없는 곳이어야 하고, 繁蕪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 공평무사한 곳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수월이 표상하고 있는 자연은 본래적 가치[道]가 영원히 지켜지는 영속과 불변의 공간이며, 편벽되지 않는 조화로운 세계여야 하는 것이다.

수은은 이와 같은 자연의 품성을 <수월정30영>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 중 시간의 순환적 질서를 통한 자연의 영원성과 불변성의 표출이 가장 먼저 발견된다.

一度韶陽一度新
山家契濶未全貧
任他紅紫競時節
粧點亭臺滿意春²⁴⁾

한 번 화창한 빛에 한 번 새로워지니
산가의 생활도 온전히 가난한 것만은 아니로세
울긋불긋 시절을 다투는 일 아랑곳 없으니
단장한 정자와 누대 봄뜻이 가득이로다

方丈山雲山上山
愁心千疊有無間
從龍未慰三農望
碧落飄然去又還²⁵⁾

방장산 구름은 산 위의 산
시름 잠긴 천 겹이 보일 듯 말 듯하네
용을 따라다니며 삼농의 바람 달래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서 등실등실 가고 오네

一片冰輪萬里浮
白雲山上白雲秋
憑誰問着此時月
應照長安明月樓²⁶⁾

한 조각 시린 달이 만리에 떠오르니
백운산 위 흰 구름도 가을이로다
누구에게 이때의 달 차지할 사람 물으면
응당 장안의 명월루를 비추리

蕁岩冬雪積成堆
疑是穆王重壁臺
誰着王恭鶴氅坐
神仙初出闌風來²⁷⁾

순암에 겨울눈이 쌓이고 쌓이니
목왕의 중벽대인 듯 의심스럽네
누가 왕공의 학창의를 입고 앉아 있다
신선이 막 낭풍에서 나왔나 보다

위의 시들은 <수월정30영> 중 제5영~제8영으로, 春夏秋冬 四時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수월정에서 조망되는 다채로운 경관을 읊고 있다. 화창한 봄빛 속에 수월정 주변은 봄꽃이 가득이다. 봄꽃이 시들어질 때 짙은 방장산, 곧 지리산으로 눈을 돌려보니 여름 구름이 높은 산 위에 등실등실 걸려 있다. 어느새 시간은 가을이 되었고, 백운산 위의 구름 속에 떠오른

24) <수월정30영> 중 제5영 '分地春花'.
25) <수월정30영> 중 제6영 '方丈夏雲'.
26) <수월정30영> 중 제7영 '白雲秋月'.
27) <수월정30영> 중 제8영 '蕁岩冬雪'.

달은 누구의 차지도 아니라서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춘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깊어져 몇 차례 눈이 왔는데, 순암에 쌓인 눈이 마치 흰 옷 입은 신선인 것만 같다. 또 시간이 흘러 화창한 봄빛이 들면 순암의 겨울은 가고 다시 누대에는 봄이 찾아 올 것이다.

이렇듯 자연은 단순히 固着됨으로써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저녁 절로 돌고 도는’²⁸⁾ 사시사철의 순환과 반복을 통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풍경들도 달라지지만 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순서에 따라 잠시 물러나는 것일 뿐이며, 다시 자신의 때가 오면 어김없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게 자연은 영원히 이어지고 있으며[永續] 항상 자신의 존재를 지켜가고[恒存] 있다. 영원한 삶이 영위되는 공간을 보통 이상향이라고 하는데, 조선 시대 사대부들의 문화적 관습상 선비들은 산수 자연에서 이를 찾곤 했다.²⁹⁾ 수는 또한 시간과 존재의 영원함이 보존되는 이상적 세계를 수월정 주변 경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자연이 이상적인 至善의 공간으로 인식되는 또 다른 이유는 본래적 아름다움이 지켜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수는 은 서로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 잡힌 조화로움으로써 그 아름다움을 실현시키고 있다. 다음은 ‘물고기가 연지에서 뛰어오르다’라는 시이다.

鑿破蒼苔一席許
清泉數斛十莖荷
天光雲影忽破碎
知有遊魚潑潑過³⁰⁾

푸른 이끼 한 자리쯤 파내고
맑은 물 몇 말에 열 줄기 연꽃이라
햇살과 구름 그림자 문득 부서지니
노니는 물고기 팔딱팔딱 지나감을 알겠네

푸른 이끼가 비칠 정도로 맑은 연못을 파고 그 둘레에 은은한 향내의 연꽃을 심었다. 햇살이 못 주변을 감싸고, 떠다니는 구름의 모습이 더해진

28) 夜朝還往自循環(〈수월정30영〉 중 제10영 ‘西山落照’.)

29) 김신중, 앞의 논문, 269쪽.

30) 〈수월정30영〉 중 제23영 ‘魚躍蓮池’.

말간 연못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문득 물결이 작게 일렁이더니 구름의 형상이 흐트러진다. 누군가 했는데 연못 속에서 노닐던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재주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기구에서 결구까지 따라가다 보면 마치 잘 그려진 수묵담채화를 감상하고 있는 듯하다. 청아함과 고요함 속에서 각각의 경물들이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수월정30영>은 계절과 밤낮의 흐름에 따라 산과 골짜기, 강과 들을 노래하는가 하면, 노을과 안개, 해와 달을 읊조리기도 하고, 들려오는 漁歌와 牧歌를 통해 평화와 안락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다기한 자연 현상을 상찬하던 시인의 흥취는 화려하게 높이 솟은 큰 집에서 옥패 차고 이름을 날리던[畫堂玉佩縈雲響] 때보다, 산수 사이를 거닐며 도롱이 입고 부르는 어가 한 가락[爭似蓑翁歌此歌]에서³¹⁾ 더욱 즐거움을 느끼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마침내 다음 시에서는 觀物에 필요한 거리마저도 없어지고 사람이 자연의 일부가 되고 있다. 다음은 제29영 ‘소나무 아래서 차를 다리다’라는 제목의 시이다.

松子煎茶松影裡
松根盤礴聽松風
松風本在松枝上
忽入先生石鼎中³²⁾

소나무 그림자 아래서 솔방울로 차를 다리니
솔뿌리 서리어 엮혔고 솔바람 소리 들려오네
솔바람은 본래 소나무 가지 위에서 부는데
문득 선생의 돌솥으로 들어왔네

소나무 그늘 아래서 솔방울을 따서 차를 다리니, 불어오는 바람에도 솔향이 묻어있다. 솔바람은 소나무 위에서 부는 것이 맞지만, 찻물의 흔들림을 보니 어느새 돌솥에 들렀다 간 듯하다. 그런데 이 솔차는 꼭 사람이 다렸다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선생’은 돌솥에 찻물만 올렸을 뿐이고,

31) <수월정30영> 중 제18영 ‘遠浦漁歌’.

32) <수월정30영> 중 제29영 ‘松下煎茶’.

술방울은 소나무에서 그저 가져온 것이요, 여기에 바람이 옮겨 놓은 술향이 절로 어우러져 술차가 다려진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이 맛을 냈으니 세상에 견줄 바 없는 최고의 絶味다.³³⁾

이렇게 최고의 차를 음미했을 ‘선생’은 이제 산수 밖 관찰자의 자리에서 일어나 산수 속으로 걸어 들어감으로써 그 자신이 산수의 일부가 되었다. 다음은 <수월정30영> 중 마지막 제영으로 ‘매화나무 옆에서 술을 따르다’라는 시이다.

一觴移就老梅根
爲是清香撲酒尊
醉後不知山日暮
淡烟疎月正黃昏³⁴⁾

술 한 잔 들고 늙은 매화나무 뿌리로 옮겨가니
맑은 향기 술동이를 치기 때문이라네
취한 뒤라 산에 해 저문 줄 몰랐는데
얽은 안개 희미한 달빛 정말 황혼이로구나

매화꽃 향기에 취해 자기도 모르게 술잔을 들고 매화나무 그늘 아래로 휘적휘적 걸어 들어가 뿌리 위에 앉았다. 매화나무 뿌리에 앉아 마시는 술은 위의 술차처럼 자연스레 매화주가 되었을 것이다. 자연이 손수 빚어 준 술을 마시고 나니 취기가 점점 올라온다. 날이 저문 줄도 몰랐는데 문득 주변을 둘러보니 어느새 얽은 안개와 달빛이 아스라이 감싼 저녁때가 되었다. 서쪽 하늘의 낙조가 술기운으로 불과해진 얼굴을 불그스름하게 비췄을 때부터 자연과 인간의 경계는 모호해져 버렸다. 여기에 안개와 달빛이 대지를 감싸고 더욱 흐릿해지면서 완전히 뒤섞여졌다. 그런데 이 ‘섞임’은 부딪쳐서 뒤섞인 혼란스러움이 아니라, 안개나 달빛처럼 슬그머니 스며들어 구분조차 애매한 ‘조화로운 섞임’, 즉 ‘同化’이다. 이렇게 제30영은 시의 종결이면서, 해가 저무는 시간의 단합이며, 이는 자연스레 인생의 저물녘[黃昏]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안온하고 평화로운 마무리로 적절한 시이다.

33) 박세인, 앞의 논문, 111쪽.

34) <수월정30영> 중 제30영 ‘梅邊酌酒’.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수월정30영>은 자연의 불변성과 영원함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물상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간과 자연의 어울림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치현8영>은 자연 경물의 묘사보다는 수은이 선택한 한정된 경물을 중심으로 유사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다음 시는 <치현8영>의 제3영인 ‘寒梅’이다.

寒梅見事苦遲遲
蝶鬧蜂喧自不知
冷淡生涯冰雪裡
癡翁憐汝似翁癡³⁵⁾

한매를 보는 일이 더디고 더딤을 괴로워하니
나비의 다툼 벌의 소란을 절로 알지 못하네
빙설 속의 냉담한 생애
치옹은 네가 치옹 같음을 불쌍히 여기노라

겨울 매화는 꽃을 피우는 일 자체가 고난이다. 시린 겨울을 이겨내야 비로소 꽃이 핀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요, 오래도록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만이 그것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다. 온갖 꽃이 피는 따뜻한 봄날이 아니라서 나비와 벌도 날아들지 않으니 참으로 외로워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군자들이 한매를 가까이 하는 까닭은 고난을 이겨낸 고집스러움과 올곧음 때문이다. 결국에서 치옹은 자신의 처지와 비슷한 한매의 냉담한 생애에 안타까움을 토로한다. 그런데 이 안타까움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버거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가야 할 고단함에 대한 안쓰러움이다. 오히려 어려움을 이기고 꽃을 피워 군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한매와 치옹을 동일시함으로써 그의 끈은 성품과 우직스러움을 강조하고 있다. 아래의 ‘菖蒲’라는 시에서도 한매와 유사한 내용이 전개되고 있다.

雪霜質質青如許
泉石膏肓不可醫
直共寒梅同臭味
不關桃李艷陽時³⁶⁾

눈보라 치고 된서리 내려도 저렇듯이 푸르니
천석고황을 고칠 수가 없네
바로 한매와 함께 취미가 같으니
도리의 한창 때를 상관하지 않네

35) <치현8영> 중 제3영 ‘寒梅’.

눈보라와 된서리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버린 꽃과 나무가 허다한데, 창포는 해가 바뀌어도 향시 푸르름을 간직하고 있다가 다시 푸른색을 보여 준다. 이러한 창포의 고집스러움을 군자의 꽃인 한매에 비유하고 있다.桃李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지 못하며, 키가 작고 꽃도 볼품없어 찾는 이가 별로 없는 적막함 또한 한매와 닮은 듯하다. 그러나 도리의 화려함은 잠깐의 경박한 삶이지만, 창포는 본래의 제 빛깔인 푸른색을 오래도록 보여주는 진중한 삶이다. 나비와 벌이 요란스레 찾지 않아도 그 은은한 향기와 색깔로 긴 시간동안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아왔다. 한매를 사랑했듯이 고난을 견디고 군자의 색을 잘 보존한 창포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한매의 생애가 치옹과 같다고 했으니 한매와 취미가 비슷한 창포 역시도 치옹의 삶과 다르지 않다.

제1영 ‘蓮池’부터 ‘菊花’, ‘한매’, ‘梧桐’, 그리고 제5영 ‘창포’까지는 경물이 가진 군자적 표상으로써 치옹의 성품을 표현하였다. 그런데 제6영 ‘古木’과 제7영 ‘怪石’에서는 바보스러운 정도로 ‘어리석은[癡]’ 삶을 살고자 하는 치옹의 숨은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먼저, ‘고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癡翁獸見紅黃綠
八景中間着老槎
鹿死千年眞骨露
孔明雖沒勝曹蜍³⁷⁾

치옹이 붉은 노란 푸른 빛을 보기 싫어서
여덟 경치 가운데 늙은 나무를 두었네
사슴이 죽으면 천 년 만에 진골이 드러나고
공명은 비록 죽었어도 조여보다 낫다네

기구과 승구에서 호화스러움만을 추종하는 천박하고 경솔한 세태에 대한 치옹의 언짢음이 노골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일부러 늙고 오래되어 화려하지 않는 나무[古木]를 선택함으로써 부박한 세상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여러 사람이 선택하는 삶 대신 외롭고 불

36) <치현8영> 중 제5영 ‘菖蒲’.

37) <치현8영> 중 제6영 ‘古木’.

편한 길을 가려는 까닭이 밝혀진다. 지금은 비록 한미한 처지로 많은 이들의 비웃음을 사고 있지만, 그 삶의 진실함[眞骨]이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리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을 적에는 글씨로 그러저러 이름을 날렸으나 곧 사람들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쯤나라 曹蜎보다는, 죽었으되 살아있는 司馬仲達를 이겼던 諸葛孔明의 삶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제6영은 긴 세월을 보내고도 여전히 살아있는 오래된 고목처럼 찰나의 영화보다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고픈 사대부로서의 포부가 강하게 드러난 시이다.

한편, 수은이 치현 주변의 경물 중 ‘怪石’을 지목해서 예찬한 까닭은 ‘고목’을 선택한 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誰將怪石寄癡翁
爲是巉岩古貌同
浮世只今無此面
向人俱學九疑峰³⁸⁾

누가 괴석을 가져다가 치옹에게 드렸나
들쭉날쭉한 바위 옛 모양과 같기 때문이네
뜬 세상 이제 이런 모습 없으니
사람들을 향해 모두 구의봉을 배우게 하는구나

치옹이 괴석을 가까이에 둔 것은 아마도 그 울퉁불퉁함이 ‘옛 모양[古貌]’과 같기 때문일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옛 모양’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답은 결구의 ‘九疑峯’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구의봉은 舜임금을 장사지낸 산이다. 그리고 괴석은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아 투박하고 질박한 본래의 모습, 곧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 본원적인 것을 상기시키는 괴석의 품성은 고대의 순임금이 常道로써 다스렸던 순수하고 완전했던 시대에 대한 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부연하자면 치옹이 현재의 고단한 삶을 감내할 수 있는 근거에는 ‘변하지 않고 항상 지켜져야 할 떳떳한 도리[常道]’를 보존하려는 굳은 의지가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경물의 속성을 형상화시켜 치옹의 사람됨을 예찬하던 시의 전개

38) <치현8영> 중 제7영 ‘怪石’.

방식이 마지막 제8영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뀌고 있다.

艷陽三月等閑事
九月清霜已足奇
況是火雲兼凍雪
衝寒冒暑獨開時³⁹⁾

화창한 3월은 등한하더니
구월 찬 서리에 심히 기특하네
하물며 뜨거운 여름과 시린 겨울에도
추위에 맞서고 더위를 무릅쓰며 홀로 피었구나

제8영은 ‘四季’라는 제명을 가지고 있다. 제명에서 보여지듯이 화창한 봄[艷陽三月]과 서리 내리는 가을[九月清霜], 뜨거운 여름[火雲]과 얼어붙은 겨울[凍雪] 등 대립되는 시간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이 대치되는 시간의 반복은 제1영~제7영에서 보여졌던 치옹의 ‘어리석은’ 삶을 되새기게 하는 한편, 호의적이지 않은 세상에 맞서 치열하게 고전했을 치옹에 대한 안쓰러운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은 애잔함은 결국에 이르러 갖은 시련을 이기고 마침내 ‘홀로’ 꽃을 피움으로써 자존을 지켜낸 인내와 지조에 대한 대견함과 존경으로 바뀌고 있다. 결국 제8영은 치옹의 품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재차 회고하게 하고 완전히 각인시키면서 <치현8영> 전체를 갈무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치현8영>의 제명들은 대상 경물만 바뀌었을 뿐, 모든 제명들이 치옹의 ‘어리석고 우직한’ 삶의 ‘정신적 우월함’을 되풀이해서 보여 주고 있다. 아울러 본시부분의 7수 중 ‘오동’과 ‘창포’를 제외하고 5수에서 ‘치옹’을 직설적으로 노출시킴으로써 치옹의 존재감을 거듭 재생시키는 한편, 그에 대한 흠모의 마음을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다.

이상으로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형상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작품이 동일하게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드러내고자 하는 속성은 서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수월정30영>이 자연의 다기함을 통해 이상적 세계를 표현했다면, <치현8영>에서는 특정 경물을 중심으로 삶의 중요한 가치를 지킨 치옹의 자긍심을 나타내고 있다.

39) <치현8영> 중 제8영 ‘四季’.

4. <水月亭三十詠>과 <癡軒八詠>의 시적 지향

수은을 중심에 두고 수월정의 주인 정설과 치현의 주인 정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 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공통적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이들이 모두 ‘버려짐[棄]의 상처’를 입은 인물이라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세 사람 모두 버려진 후에 ‘자연으로의 귀의’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 수은의 삶을 잠깐 언급했듯이 그는 31세였던 정유년 봄에 휴가차 잠시 고향 영광에 내려와 있다가 전쟁을 맞이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해 9월에 왜군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4년여의 포로생활을 겪은 후 34세 봄에 생환하였다. 그런데 귀환 이후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全節 생환의 진실성에 대한 무수한 비판 속에서 결국 敍用되지 못하고 쓸쓸히 귀향함으로써 더 이상 治世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4년의 짧은 관료 생활을 마쳐야 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두 자식과 측실, 조카 등 가족을 잃고, 향리의 터전이 손실되는 등 수은이 누리고 있었던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말았다. 즉, 수은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혹은 관료로서 심각한 내면적 상처를 안고서 낙향을 했던 것이다.⁴⁰⁾

정설이 무슨 이유로 관료 생활을 마쳐야 했는지 정확치 않지만, 그의 정치적 삶은 그리 평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정설의 1547년 출생과⁴¹⁾ 임진왜란(1592)을 염두에 두고, ‘나이 50세’, ‘병화 10년’이라는 <수월정기>와 <수월정30영>의 내용을 통해 수월정의 조영 시기를 추정해 보면 대략 1597년~1602년 정도 된다. 그런데 이 시기 『朝鮮王朝實錄』의 기록에서는 정설에 대한 평가가 별로 호의적이지 않다.

급제한 정설은 일찍이 蔡之穆을 敎唆하여 상소하게 한 일로 형을 받고 유

40) 박세인, 앞의 논문, 14~22쪽 참조.

41)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참조.

배되었다가 난리 후에 복직하여 외직에 보임되었는데, 근년에 또 仕版에서 삭제되는 죄를 지었다. 그런데도 뉘우칠 줄 모른 채 광양의 해변에 옮겨가 살면서 널리 전원을 마련하고 양민의 소유를 다수 점유하였으며, 배 3척을 건조하여 오로지 魚鹽을 판매하는 이익에만 뜻을 두고 호기를 부리며 침탈하므로 백성들로부터 너무도 원한을 많이 사고 있다.⁴²⁾

밑줄 친 내용으로 보아 광양에 수월정을 지었던 시기가 이즈음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런데 이 기록 속의 정설은 근신을 해야 하는데도 도리어 私家를 넓히고 향리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등 부패한 전직 관료로 묘사되어 있다. 당시 實錄의 기록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貶毀가 심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정설이 정치적 浮沈을 심하게 겪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정설 역시 관료로서의 품격이 크게 훼손당한 채 귀향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용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치헌기>의 서두에 나와 있듯이 그 역시 정유왜란 때 생활의 기반을 잃는 상실의 고통을 겪었다. 물론 정용은 한 번도 환로에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의 두 사람과는 다소 다른 경우이다. 그러나 명리를 도모하지 않는 우직함이 오히려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고 시대의 쓰임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의 삶 역시 매우 고단했을 것임은 자명하다.

수은은 이처럼 세상에 수용되지 못하고 버려졌다는⁴³⁾ 유사한 경험과 기억의 공유를 통해 두 사람에게 동류의식을 느낀 듯하다. 수은이 정설에게, 정용이 수은에게 서로를 향해 ‘버려졌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말해준다. 한편, 수은은 비록 ‘大夫’로서의 삶은 실패했지만 귀향

42) 及第鄭濩 曾以教唆蔡之穆上疏之事 受刑被竄 亂離後 復職補外 頃年又被削去仕版之罪 猶不悛改 移居光陽海曲 廣築田園 多占良民 造船三隻 專意於魚鹽興販之利 侵漁豪奪 取怨於民者甚多.(『朝鮮王朝實錄』 선조 35년(1602) 8월 21일조,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참조.)

43) 수은의 자선에 대한 ‘棄物’ 인식은 이해순도 지적한 바 있다.(이혜순, 앞의 논문, 204쪽 참조.)

후에 자연을 벗 삼아 지내며 후학들을 길러냄으로써 스스로 상실감을 극복하고 ‘士’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였다. 그런데 정설과 정용 역시 버려진 후에 제 힘으로 ‘일어서야’ 하는 곳에 수월정과 치현을 조영하였고, 수은은 두 사람을 위해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을 제작하고 있다. 아마도 수은은 두 작품을 통해 정설과 정용의 ‘일어섬’을 노래하고 싶었을 것이다.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은 이와 같은 관계망 속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두 작품 속에는 상처의 치유를 통한 일어섬, 즉 자존의 회복을 지향하는 수은의 바람이 담겨져 있다. 수은은 <수월정30영>에서 자연의 영속성과 항존성에 기대어 인간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자연을 보여주었다. 또한 아픔을 이겨내고 스스로 자연에 동화되어 자足하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그의 궁극적 지향점을 확인시켜 주었다. 한편, <치현8영>에서는 치용이 자연인으로서 선택한 삶의 가치를 거듭 긍정하는 방식으로써 현재 자기 존재에 대한 수은의 신뢰와 확신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양상들은 수은에게 있어 자연에서의 삶이 더 이상 상처가 아니며 자아에 대한 긍지와 자존감을 충만하게 하는 기반임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5. 맺음말

본 논문은 수은의 연작형 제영시인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에 대한 대비적 고찰을 통해 수은시 이해의 지평을 넓혀보고자 연구되었다.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작시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는 수은이 동일한 공간을 대상으로 남겨놓은 <수월정기>와 <치현기>를 통해 고찰하였다. <수월정30영>은 정치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귀향한 수월정 주인 정설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그에 비해 <치

현8영>은 치현의 주인이자 수은과 사돈 간인 정용의 ‘어리석은[癡]’ 삶의 가치와 자긍심을 드러내고자 창작되었다.

다음으로 연작의 구성 방식을 비교해서 검토하였다. 두 작품 모두 팔경 가형 연작 제형시에 속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공통점인 소재명의 제명 방식에서부터 차이가 두드러진다. <수월정30영>은 자연 경관의 구체적인 ‘펼침’을 통해 설명하는 방식이나, <치현8영>은 상징적 의미가 유사한 경물을 단순히 ‘반복’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연작의 구성에서도 <수월정30영>은 서-본-결의 안정적인 3단 구성 안에 자연을 효과적으로 펼쳐 놓았다면, <치현8영>은 본-결의 2단 구성으로써 반복을 통한 강조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어서 두 작품에 나타난 물상의 형상화 양상을 탐색하였다. <수월정30영>은 자연의 다기함을 통해 이상적 세계를 표현하였다. 이에 따라 시간의 순환적 질서를 통한 자연의 영속성과 불변성, 물상의 조화로우움과 다채로움, 자연에 동화된 인간의 모습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치현8영>의 형상화 양상은 다소 단조로운데,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경물을 중심으로 치용의 ‘어리석고 우직한’ 삶의 ‘정신적 우월함’을 되풀이해서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수월정30영>과 <치현8영>의 시적 지향을 알아보았다. 수은과 정설 그리고 정용에게서는 ‘버려짐[棄]의 상처’와 버려진 후에 ‘자연으로의 귀의’라는 동일한 경험이 발견되고 있다. 수은은 일종의 동류의식을 바탕으로 두 사람을 위해 시를 짓고 있으며, 두 작품을 통해 자연 속에서 상처의 치유를 통한 자존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참고문헌

姜沆, 『睡隱集』.

광양시지편찬위원회, 『광양시지』 1권·3권, 2005.

鄭澈, 『松江集』.

김기빈, 「수은 강항 연구-애국사상과 문학세계」,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5.

김동준, 「수은 강항의 삶과 시」, 한국한시학회 편, 『한국한시작가연구』 제8집, 태학사, 2003.

김명식, 「간양록 연구-전쟁문학적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김신중, 「전남의 누정제영 연구-조선 후기의 연작제영을 중심으로」, 『호남문화연구』 제24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6, 257/261~265쪽.

김태준, 「일본 신유학의 성립과 조선학자-임란전후의 조선문화의 대일 영향을 중심으로」, 『명대논문집』 제8집, 명지대학교, 1975.

김태준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박균섭, 「강항이 일본 주자학에 끼친 영향」, 『일본학보』 제37집, 한국일본학회, 1996.

박세인, 「수은 강항의 시문학 연구-내상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4~22/ 106/ 111쪽.

이동희, 「수은 강항의 애국정신과 일본에의 주자학 전파」, 『유교사상연구』 제12집, 한국유교학회, 1999.

이민호, 「임진왜란기 강항의 적중생활과 일본유학」, 『단국대학교대학원 학술논총』 제9집, 단국대학교, 1985.

이채연, 「『간양록』의 실기문학적 특징」, 『한국문학논총』 제13집, 한국문학학회, 1992.

- 이혜순, 「수는 강항의 시적 사유와 그 의미-귀환 이후의 시작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제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204쪽.
- 임치균, 「『간양록』 연구-사실 제시와 체험의 형상화」, 『정신문화연구』 통권 83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1.
-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편, 『호남문화연구』 제20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1991, 247쪽.
- 채승훈, 「수는 강항의 시세계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 최대우·안동교, 「강항의 위도정신과 일본에서 유학전수」, 『호남문화연구』 제38집, 전남대학교 호남문화연구소, 2006.
- 姜在彦, 「江戸儒學と姜沆」, 『日本學』 제13집,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1994.
- 內藤雋輔, 「壬辰·丁酉役に 있어서 被虜朝鮮人の 刷還問題에 대하여」, 『國會圖書館報』 제3권 3호(통권 제22호), 국회도서관, 1966.
- 松田甲, 「藤原惺窩と姜睡隱の關係」, 『韓日關係史研究』, 朝鮮總督府, 1929.
- 辛基秀·村上恒夫 共著, 『儒者姜沆と日本』, 東京: 明石書店, 1991.
- 阿部吉雄, 「藤原惺窩の儒學と朝鮮-姜沆の彙抄十六種の新調査にちなんで」, 『朝鮮學報』 제12집, 조선학회, 1958.
-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 <http://sillok.history.go.kr>.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http://people.aks.ac.kr>.

<Abstract>

A Study on Su-eun Gang Hang's Poetry, A Series of Poems on Arbors

Park, Se-in

Examining Su-eun(睡隱) Gang Hang(姜沆, 1567~1618)'s <Suwalljung 30 Poems(水月亭30詠)> and <Chihun 8 Poems(癡軒8詠)>, this article aims to enlarge an understanding of Su-eun's poetry. A Su-eun's literary collection, 『Sueunjip(睡隱集)』 includes his poems on arbors(52 poems under 14 titles), the poems of which <Suwalljung 30 Poems> and <Chihun 8 Poems> are only written as a series of poems.

First, I examined the context in which <Suwalljung 30 Poems> and <Chihun 8 Poems> were written by consulting Su-eun's two essays, Suwalljung and Chihun. Su-eun wrote <Suwalljung 30 Poems> to encourage Jung Sul(鄭渫) the owner of Suwalljung, who had retired to the country after his political failure. Meanwhile, <Chihun 8 Poems> was written to emphasize an ironic value of 'silliness[Chi(癡)]' in Jung Yong(丁鎔)'s life as honesty and sincerity, who was the owner of Chihun and Su-eun's in-law.

Although both <Suwalljung 30 Poems> and <Chihun 8 Poems> are a series of poems that contains a good deal of landscape, there are remarkable differences in the ways in which poems in each series are titled. The titles of the poems in <Suwalljung 30 Poems> vividly describe the landscape of Suwalljung, but the titles in <Chihun 8 Poems> merely present natural objects that imply human nature. As for poetic forms, <Suwalljung 30 Poems> describes the landscape in a well-structured form: Introduction(Poem1)-

Body(Poem2~Poem24)-Conclusion(Poem25~Poem30); however, <Chihun 8 Poems> consists of only 2 parts, Body(Poem1~Poem7) and Conclusion (Poem8), in which the described natural elements mirror Sir. Chi(癡翁)'s life.

Then, I looked into poetic styles. <Suwalljung 30 Poems> creates an ideal world that embodies the eternity and constancy of nature, harmony and variety, and human life close to nature. Meanwhile, <Chihun 8 Poems> highlights the significance of 'silly yet honest life' in a simple description of natural elements that symbolize fidelity and honor.

Finally, I examined poetic vision of <Suwalljung 30 Poems> and <Chihun 8 Poems>. Su-eun, Jung Sul and Jung Yong, all of them suffered from 'abandonment' and returned to 'nature' after abandonment. Thus, Su-eun composed the poems for both Jung Sul and Jung Yong in empathy with them and tried to recover his self-esteem by healing his wounds in nature.

Key words : Su-eun, Gang Hang, Sueunjip, A series of poems on arbors, Suwalljung 30 Poems, Chihun 8 Poems, Jung Sul, Jung Yong, Recovery, Healing